

## K-조선, 중국 제치고 수주 1위 탈환



▲ 현대중공업의 LNG선. 출처=현대중공업

한국 조선업계가 올해 1·4분기 중국을 따돌리고 수주 1위 자리에 올랐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영국의 조선·해운 시장 분석 업체 클락슨리서치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한국은 전세계 선박 발주량 920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 457만CGT(49.7%)를 따내며 수주 1위를 차지했다.

전세계 발주량이 전년 동기보다 41% 줄어들었음에도 한국 조선사들은 선전한 것이다. 지난해 1·4분기

시장 점유율 46%를 차지했던 중국은 올해 41.9%로 감소했고 일본도 같은 기간 12.8%에서 2.7%로 하락했다.

작년 1·4분기 37.2%였던 한국 조선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급등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선의 대량 수주 덕분이다. 올해 발주된 17만4,000m³(입방미터) 이상 대형 LNG선 38척 중 71%인 27척을 한국이 수주했다. 중국의 LNG선 수주는 11척에 그쳤다.

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이상 컨테이너선도 총 44척 발주된 가운데 한국이 21척을 수주하며 47.7%를 차지했다.

조선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인해 LNG선 수주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체 발주량은 줄었지만 LNG선 시장이 편광아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며 "올해 1·4분기에 수주한 LNG선의 경우 2025년 말 인도 예정일 정도로 수주 잔고가 많은 편이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대체 자원을 알아보고 있어 LNG선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순자산 상위 1% 기준은 29억 원

지난해 한국의 순자산 상위 1% 기준은 29억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NH투자증권 100세대연구소는 이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가구의 순자산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순자산 상위 1% 가구 기준선은 29억2천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2020년의 26억1천만 원보다 3억1천10만 원(11.9%) 오른 수치다.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평균 연령은 63.5세였다. 연령대 분포는 60대가 34.6%로 비중이 컸으며 이어 50대 25.3%, 70대 21.4%, 40대 9.9% 순으로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했다.

또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72%가 수도권에 거주

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했다. 가구원 수는 평균 2.8명으로 2인 가구(42.9%)가 가장 많았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51억 원으로 평균 순자산이 46억 원, 평균 부채는 4억 7천만 원이었다. 부채 비율은 9.2%로 전체 가구 평균(17.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자산 구성 현황은 금융자산 17.8%, 실물자산 82.2%로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평균 2억1천571만 원이다. 이 가운데 근로나 사업으로 얻는 인적 소득이 연 1억3천136만 원으로 60.9%를 차지했다.

월평균 소비 금액은 479만 원이며 지출은 식비(140만 원), 교육비(67만 원), 주거비(56만 원) 순으로 많았다.

## 코로나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



▲ 사진=shutterstock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이 가구의 소득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상위 40% 가구만 코로나19 이전의 월평균 총소득 수준을 회복했을 뿐 하위계층의 총소득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5일 '아시아경제'가 신한은행이 이날 발간한 신한 보통사람 금융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전년 대비 3.1%(15만원) 증가한 49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월평균 총소득은 코로나19 영향에 전년 대비 1.6%(8만원) 줄어든 478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엔 다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486만원)을 넘어섰다.

소득 구간별 월 평균 소득 증감엔 차이가 있었다. 5구간(상위 20%), 4구간(상위 20~40%)은 총소득이 전년대비 각각 5.9%, 4.7% 증가한 948만원, 583만원으로 지난 2019년 소득수준(5구간 902만원, 4구간 566만원)을 뛰어넘었다. 반면 3구간(중간 20%)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447만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453만원) 수준엔 미달했다. 1구간(하위 20%)과 2구간(하위 20~40%)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마저 각각 전년 대비 1.1%, 1.6% 감소한 181만원, 305만원으로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저·고소득층 간 월평균 가구 총소득 격차는 4년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5구간과 1구간의 총소득 격차는 지난 2020년까지 4.76~4.88배로 4.8배 안팎을 유지했으나, 지난해엔 5.23배로 큰 격차를 보였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